호랑이 닮은 산, 犬頭山으로 바꾼 까닭은?

〈견두산〉

전남 '개' 관련 지명 27곳 전국 최다…道, 스토리텔링 눈길

'산봉우리가 개 머리를 닮았다 하여 견수산(犬首山)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원래 이름은 호랑이 머리를 닮았다는 의미의 호두산(虎頭山)이었다. 이 일대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일이 많아 산을 향해 호랑이 형상을 세우고 견두산(犬頭山)으로 개명했더니 재앙이 없어졌다'〈구례 산동면 견두산(犬頭山)〉

'마을 뒷산이 개 모양인데, 개 앞으로 길을 내주면 좋다 하여 견도(犬道)라 불리던 것이 후에 발음의 변화로 전도가 되었다.'〈화순 이서면 전도(傳道)〉

무술년(戊戌年) '황금개띠 해'를 맞아 전남도가 '개 지명'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와 관련한 지명은 전국에 101곳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27곳이 전남이었다. 마을 16곳, 섬 7곳, 산 2곳, 고개 2곳이었다.

시·군별로는 신안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화순 4곳, 고흥 3곳, 나주·여수·영광·장성·진도가 2곳씩이었다. 구례·무안·보성·영암·해남에도 각각 1곳이 있었다.

지형이 '개와 닮았다'하여 붙여진 지명이 많았다. '달리는 개'의 형국을 표현한 보성 노동면 '구주'(狗走), 신안 비금면 '주구도'(走狗島·개섬)가 대표적이다.

또 여수 소라면에는 '개발섬'이라는 불리는 '구족도'(狗足島·개 발모양)가, 영광 법성면에는 잠자고 있는 개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숙구지'(宿狗地)가 있다.

영암 삼호읍에는 개가 누워있는 모습이라는 '구와도'(狗臥島)가, 장성 삼서면에는 같은 지명의 '구와산'(狗臥山)이 있다. '달려드는 범에게 개가 살려달라고 비는 형국이라는 걸생(乞生)이 후에 길성(吉星)'이라 불리게 된 길성 마을도 있다.

광주에는 동구 내남동에 '개바위등'이라는 곳이 있다. 이 고개에서 개들이 많이 모여 놀았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박병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문화와 역사가 녹아든 지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래 등을 발굴하겠다"며 "지역에서 유래한 전통 지명이 부여되도록 문헌 등 자료 조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시 인사 165명 승진

광주시는 8일 2급 이사관에 정민곤 문화관광체육실장과 이연 교통건설국장을 각각 승진시키는 등 165명을 승진·의결했다.

〈명단 22면〉

이날 광주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로연수·명예퇴직에 따른 2급 2명, 3급 6명, 4급 18명, 5급 34명의 승진자를 결정했다. 또 6급 53명, 7급 46명, 8급 6명 등 모두 165명이 승진했다.

3급 국장급(부이사관) 승진에는 이효상 문화도시정책관, 오채중 행정지원과장, 문정찬 지역공동체추진단장, 황인숙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손경종 일자리경제국장 지정대리, 조영관 환경연구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과장급(서기관·4급)에는 김요성 교통기획(이하 담당·계장), 서재주 법무, 손옥수 예산총괄, 송준현 홍보총괄, 안덕헌 환경정책, 유영 4차산업정책 등이 승진했다. 또 윤승중 의안, 이상재 청렴예방감사, 이승국 인사, 이승철 청년정책, 전인근 여성정책, 제순자 대회기획, 김병용 생명농업정책, 김재식 5·18시설, 이은상 문화기반시설, 배석진 환경조사과장(직위승진), 조혜경 농업지원과장(직위승진) 등도 포함됐다.

한편 승진의결에 따른 4급 이상 국·과장급 전보인사는 오는 11일에 단행할 예정이다. 5급 이하 전보인사도 이달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루 앞둔 8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판문점으로 가는 길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고위급 전체회의 오전 10시 개최

북, 9시 30분 MDL 통과 도보로 '평화의집'에

"평창올림픽 참가 집중…이산가족 문제 등 논의"

남북이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에 대해 논의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9일 회담은 오전 10시 전체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이자 2년여 만에 열리는 이번 남북 당국회담에는 우리측에선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에선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한 각 5명의 양측 대표단이 각각 참석한다. 북측 대표단은 오전 9시 3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도보로 회담 장소인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으로 이동한다.

의제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안으로, 정부는 우선 평창올림픽 관련 사안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선 선수단 방남(訪南) 경로와 개회식 공동입장 등이 주요 의제로, 남북이 크게 부딪칠 일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평창올림픽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7월 북한에 제의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한 군사당국회담 및 적십자회담 개최 문제를 재차 제기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 전략자산 전개 중지 등을 거듭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또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도 언급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는 한 대규모 경협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측이 북핵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백태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가 의제로 오르느냐'는 질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오늘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발표

日 책임있는 조치 촉구·10억엔 처리 방안 등 내놓을 듯

정부는 9일 중으로 12·28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내용상·절차상으로 중대한 흠결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장 재협상 또는 파기 절차에 들어가기보다는 일본 정부가 먼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12·28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과 출연금 10억엔 처리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의 10일 신년 기자회견 이전에 주무부처인 외교부가 후속조치를 발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위안부 문제가 갖는 심각성과 인류보편주의 정신에 따라 일본 정부가 잘못된 위안부 합의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재협상 또는 파기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위안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당장 재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여의치 않고, 그렇다고 국가간 합의를 섣불리 파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당초 문 대통령이 10일 기자회견에서 후속조치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통령이 떠안을 부담을 감안해 외교부가 먼저 후속조치를 발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물 만난' 전남산 물김

2018년산 생산액 1천억 돌파…5월 5천억 달할 듯

지난해 10월부터 생산에 들어간 '2018년 전남산 물김' 생산액이 일찌감치 1000억원을 돌파했다. 생산을 마감하는 오는 5월이면 사상 최대 실적인 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고흥 등 전남 12개 시·군, 2294개 어가에서 생산한 김은 모두 7만7000t으로 생산액은 105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11일 첫 생산 이후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2%, 생산액은 91% 늘었다. 생산액 1000억원 돌파 시점도 지난해보다 22일 빠르다.

전남도는 수온(8~10도), 영양염 등 해역 조건이 최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채묘 상태와 앞으로 수온도 양호할 것으로 보여 호조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남 김 생산량은 38만t, 생산액 456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남도는 내다봤다. 양식시설 현황 등을 고려한 올해 생산 계획량은 32만1000t, 3687억원이었다.

생산량은 증가에도 충남 서천 등 서해안 일부에서 발생한 황백화 현상, 수출·소비 증가 등 영향으로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김 양식 호황에 따라 김 수출도 급증했다. 우리나라 김 수출액은 2007년 6000만 달러에서 2016년 3억5000만달러, 지난해에는 5억달러를 돌파했다. 10년새 8배이상 가량 급증했다. 올해는 6억달러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남은 우리나라 김 주산지다. 2016년 기준 김 생산량이 31만t으로 전국(40만9000t)의 75.8%를 차지했다. 일부 지역 작황 부진으로 올해에는 점유율이 80%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송원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김 수출액은 2024년께 10억달러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김 생산 안정화를 위해 신규어장과 생산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올해 어장 개발계획 수립에도 김 양식어장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돈 놀분 쓸분 대출
(주)오천경매대부 대표 최대성, 등록번호 2016-금감원 0622, 법정이자율 : 연 27.9%(월 2.3%) 이내,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조건 없음,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등록시도명칭 : 광주광역시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상담문의.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KHSA 심의번호 : 21719239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010-3598-7080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745만) 매 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원 (보 2억원, 월1,200만 포함)
•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500㎡ 매 24억
• 장덕동 3층 원룸 대291㎡,건485㎡ 매 7억(보1억 월318만)
• 장덕동 3층 원룸 대262㎡,건400㎡ 매 8.5억(보3천만 월402만)
• 산정동 4층 원룸 대455㎡,건660㎡ 매 13.7억(보8천 월591만)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대192㎡, 건490㎡ 매 9.5억
토 지
• 서구 서창동 대지 2종주거지역 1760㎡ 매 13억6천
• 광산구 남산동 대지 1종주거지역 421㎡ 매1억5백만
• 임암동 효천1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화정동 대지 준주거지역 1,000㎡ 매 50억
• 산정동 생산녹지,창고용지 3,810㎡ 매 20억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야적장 적합)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만원(모텔허가 득)
• 담양군 대전면 성산리 1종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 (창고적합)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5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태양광 발전소 삽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견적 설계 · 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각도 조절, 잡초 제거(풀약, 애초기)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담 010-8813-4770